

6~7세기 백제 사찰 내 강당 좌우 건물지의 변천과정 고찰

정 자 영*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주제어 : 6~7세기 백제 사찰, 강당, 회랑 복단 건물지, 강당 좌우 건물지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부여 정림사지는 1942년 이후 1차례, 1979년~1980년 1차례 등 2차례에 걸쳐 사역 전체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2008~2009년에는 정비·복원을 목적으로 재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에서 중문지·금당지·회랑지는 고려시대에 재건된 건물지로, 현 보호각 아래의 강당지, 회랑 복단의 건물지, 서회랑지, 석축배수로는 백제시대의 건물지로 밝혀졌다. 잔존상태로 보아 고려시대의 건물은 백제시대 건물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재건된 것으로 보고되었다¹⁾.

2년여에 걸친 조사에서는 기존에 백제시대 정림사의 가람배치 안(案)을 제시한 후지사와

카즈오(藤澤一夫)²⁾나, 윤무병 교수³⁾의 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람배치가 확인되었다.

3개의 가람배치(안)에서는 강당과 강당 좌우의 건물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후지사와 카즈오의 가람배치 안(그림 1의 좌)에는 강당 좌우에 인접하여 장방형 건물이 배치되어 있고, 윤무병의 가람배치 안(그림 1의 중)에는 강당 좌우로 북회랑이 연결되어 있으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가람배치 안⁴⁾(그림 1의 우)에는 강당 좌우에 회랑 복단과 연결된 건물지가 강당 복단까지 한 건물로 이어지고 있다⁵⁾. 윤무

2) 藤澤一夫, 「古代寺阮の遺構に見る韓日の關係」, 1971. (부여군, 『정림사지권역 정비 기본계획 1』, 2006, 47쪽, 그림 2-19 재인용)

3) 尹武柄, 『定林寺址發掘調査報告書』, 도면2, 1989.

4) ① 김낙중·정자영·이화영, 「정림사지 발굴조사현황과 성과」, 『定林寺 역사문화적 가치와 연구현황』 학술세미나발표자료집,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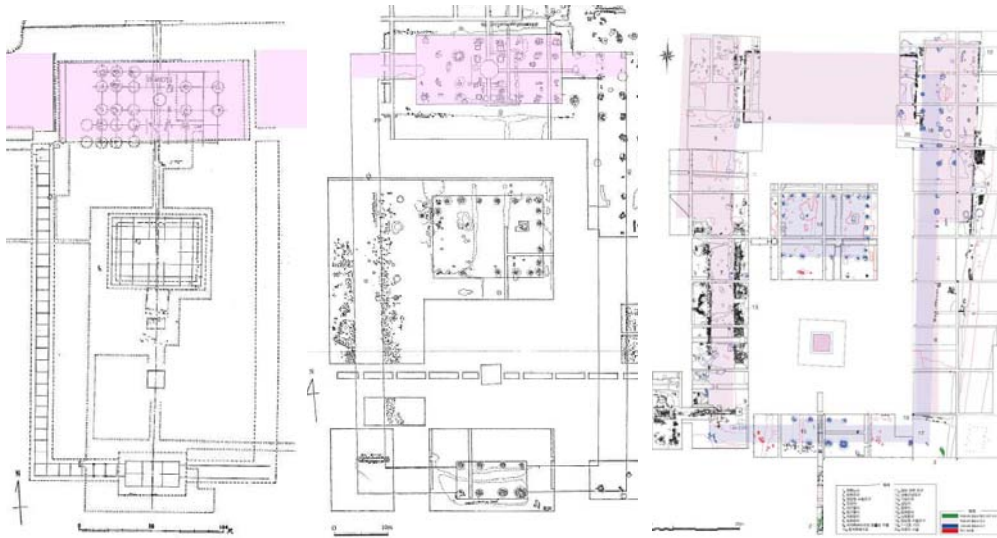
②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0 정림사 유적 판플랫」, 2010.

5) 김낙중·정자영·이화영, 주 4)-①의 앞의 책, 2009.

* 교신저자, 이메일: wjd0305@korea.kr

1) ①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정림사지 제8차 발굴조사」, 『2008 백제문화를 찾아서』, 2009.

②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정림사지 제9차 발굴조사」, 『2009 백제문화를 찾아서』, 2010.



<그림 1> 정림사지 가람배치(좌 1안, 중 2안, 우 3안)

병 안은 고려시대 회랑의 적심석을 근거로 강당 좌우로 회랑이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어, 백제시대의 가람배치보다는 고려시대의 가람배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안은 회랑 북단 건물에 고려시대 퇴적층 아래에서 발견되고 있어 적어도 백제시대 마지막 단계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⁶⁾.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안과 윤무병 안은 시기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전자는 백제시대, 후자는 고려시대의 가람배치이다. 후지사와 카즈오의 안은 당시 부여지역에서 조사되었던 군수리사지⁷⁾와 동남리사지⁸⁾의 강당 좌우 건물

지와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재발굴조사에서는 강당의 서편 건물지의 동측기단선이 확인되었으나 회랑 북단과 연결된 건물지의 기단 일부인 것으로 생각되어, 가람배치 1안에서 확인된 건물의 존재는 알 수 없었다. 이 건물이 원래 존재하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는지 선급하게 단언하기 어렵지만, 회랑 북단의 건물이 조성되기 이전에 사용되다가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림사지에서는 강당 좌우에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나타나는데, 이는 정림사지에서 자체적으로 강당 좌우의 건물지가 폐기된 후 회랑 북단의 건물이 강당까지 이어진 형태로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강당 좌우의 건물지는 존재하지 않고 회랑 북단의 건물지만 존재하였는지 의문이 남게 되었다.

이에 백제시대 6~7세기 사찰유적에서는 강당 좌우 건물과 회랑 북단의 건물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며 시대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이 관찰되는지 살펴보는 것을 이 논문의 목적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한국 고대 사찰에서 강당과 강당

6) 현재 남아 있는 정림사지 백제유적은 최후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사역대지 조성도의 일부에는 이전에 사용된 기와가 매몰되어 있고, 서회랑지 우측의 기와무지에 폐기된 기와, 소조상 등이 매몰된 것으로 보아 이전 단계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주 1)의 앞의 책, 2008~2009).

7) 石田茂作, 「扶餘軍守里廢寺址發掘調査(概要)」, 『昭和十一年度 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1937.

8) 朝鮮古蹟研究會, 「扶餘東南里廢寺址發掘調査」, 『昭和十三年度 古蹟調査報告』, 圖版第三十七, 1940.

주변 건물지를 주제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고대 불교사원의 강당건축에 관한 연구⁹⁾
 - (2) 가람의 시기별 경·종루의 배치 특성에 관한 연구¹⁰⁾
 - (3) 강당의 건축 형식에 관한 연구¹¹⁾
 - (4) 봉불과 강설공간의 변화과정 연구¹²⁾
- 등이 있다. 위의 연구는 고대 사찰에서 고려 시대까지 연구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가람배치상에 나타난 특성과 변천과정에 대해 연구되어 있어 고대 사찰의 강당 좌우 건물지에 대

해서는 집중되어 있지 않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5~7세기 발굴 조사된 백제 사찰 유적으로 한정하였다(표 1). 그리고 연구의 주제와 관련 있는 강당, 강당 좌우 건물지, 회랑 복단 건물지가 조사된 유적만을 세부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창건 당시 건립된 건물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물이 재건된 경우는 7세기대 이루어진 사실만을 참고하였다.

강당 좌우에 건물이 배치된 유적에는 군수

[표 1] 백제시대 사찰유적 조사 현황

NO	유적명	시기	개별 건물지							소재지
			탑	금당	강당	강당 좌우 건물	회랑 복단 건물	회랑 외곽 건물	승방	
1	군수리사지 ¹³⁾	6세기전중	○	○	○	○	-	○	-	부여
2	동담리사지 ¹⁴⁾	6세기전중	×	○	○	○	×	-	-	부여
3	능산리사지 ¹⁵⁾	567년	○	○	○	○	○	×	-	부여
4	왕흥사지 ¹⁶⁾	577년	○	○	○	○	○	○	-	부여
5	정립사지 ¹⁷⁾	6세기중후	○	×	○	×	○	-	○	부여
6	부소산사지 ¹⁸⁾	7세기전	○	○	-	×	×	-	-	부여
7	금강사지 ¹⁹⁾	7세기전	○	○	○	×	×	-	○	부여
8	용정리사지 ²⁰⁾	7세기전	○	○	-	×	-	-	-	부여
9	미륵사지 ²¹⁾	7세기전	○	○	○	×	○	-	○	익산
10	계석사지 ²²⁾	7세기전	○	○	○	×	○	×	○	익산
11	왕궁리사지 ²³⁾	7세기	○	○	○	×	×	×	-	익산

○ : 발굴조사 되어 확인된 유적, × : 발굴 당시 확인되지 않은 유적, - : 발굴되지 않은 유적

9) 이나영, 「한국고대불교사원의 강당건축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석사논문, 2000.

10) 박대성, 「伽藍의 시기별 經·鐘樓의 配置特性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11) 전익정, 「한국 사찰 내 강당의 건축 형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12) 홍병화, 「우리나라 사찰건축에서 奉佛과 강설공간의 변화과정」, 건축역사연구, 제71호, 2010.

13) ①石田茂作, 주 7)의 앞의 책, 1937.

②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扶餘軍守里寺址 I-木塔址·金堂址·東便一帶 發掘調査報告-』,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學術研究叢書 第53輯, 2010.

14) ①朝鮮古跡研究會, 주 8)의 앞의 책, 1940.

②忠南大學校博物館, 『東南里遺蹟發掘調査略報告書』, 1993.

15) 國立扶餘博物館, 『陵寺』, 國立扶餘博物館 遺蹟調査報告書 第8冊, 2000.

16) ①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興寺址 III-木塔址 金堂址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學術研究叢書 第52輯, 2009.

리사지·동남리사지·능산리사지·왕흥사지 등 4개소이며, 회랑 북단에 건물지 배치된 유적에는 능산리사지·왕흥사지·정립사지·미륵사지·계석사지 등 5개소이다. 이들 유적은 유적별로 강당과 좌우 건물지, 회랑 북단의 건물지의 존재여부, 배치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문의 기술은 1장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 2장은 개별 건물지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하였고, 3장은 개별 건물지의 기능과 용도를 살펴보았다. 4장은 유적의 편년과 개별 건물지의 변천 과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2. 개별 건물지의 비교 검토

2-1. 강당 좌우 건물지

②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왕흥사지 제10차 발굴조사」, 『2009 백제문화를 찾아서』, 2010.

17) ①尹武柄, 1989, 『定林寺址發掘調査報告書』.

②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주 1)-① 앞의 책, 2009.

③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주 1)-② 앞의 책, 2010.

18) 國立文化財研究所, 『扶蘇山城-廢寺 發掘調査報告-』, 『扶蘇山城 發掘調査報告書』, 1996.

19) 國立博物館, 『金剛寺-扶餘郡 恩山面 琴公里 百濟寺址 發掘報告』,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七冊』, 1969.

20) 扶餘文化財研究所, 『龍井里寺址』, 『扶餘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5輯』, 1993.

21) ①文化財研究所 文化財管理局, 『彌勒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 1989.

②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彌勒寺址遺蹟發掘調査報告書』(圖版編)Ⅱ,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13輯』, 1996.

22) ①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益山帝釋寺址 試掘調査報告書』, 『遺蹟調査報告36輯』, 1994.

②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익산 계석사지 제1차 발굴조사」, 『2008 백제문화를 찾아서』,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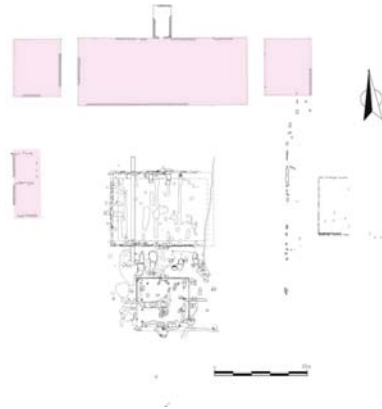
③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익산 계석사지 제2차 발굴조사」, 『2009 백제문화를 찾아서』, 2010.

23)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王宮里Ⅵ』,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47輯』, 2008.

강당 좌우에 건물지가 배치된 유적으로는 군수리사지·동남리사지·능산리사지·왕흥사지 유적이 있다.

(1) 군수리사지

군수리사지의 강당 좌우에는 강당 기단 외측에서 4.85m 떨어진 곳에 장방형 건물지가 자리 잡고 있다. 기단규모는 12.42×15.15m이다. 건물은 전면보다 측면이 길며 1:1.21의 비례를 나타낸다. 좌우 건물은 경루(서북기단)와 종루지(동북기단)로 명명되고 있다. 서회랑 북단에는 방으로 구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²⁴⁾(그림 2).



<그림 2> 군수리사지 가람배치도
 (『扶餘軍守里寺址 I -木塔址·金堂址·東便一帶 發掘調査報告-』, 2010, 23쪽, 도면 5)

(2) 동남리사지

동남리사지의 강당 좌우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장방형 건물지가 자리 잡고 있다. 서편 건물지(경루지)의 규모는 추정 10.9×13.3m이다. 건물은 전면보다 측면이 길며 1:1.22의 비례를 나타낸다. 보고서에서는 강당 좌우의 건물을 경루와 종루지로 명명하였고 양 건물은 회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24) 金星雨, 「一塔一金堂 形式의 發展」, 『大韓建築學會 論文集 5卷6號 通卷 26號』, 1989, 160~162쪽



<그림 3> 동남리사지 가람배치도
(『扶餘東南里廢寺址發掘調査』, 1940, 圖版第三十七)

되었다²⁵⁾(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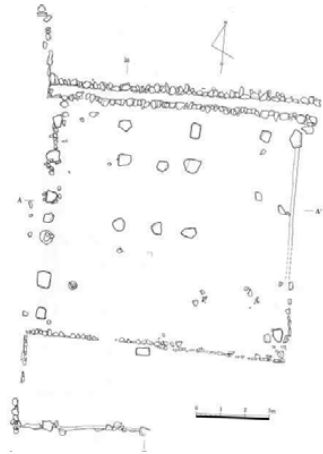
(3) 능산리사지

능산리사지의 강당 동편에는 강당 동측기단과 연결되어 동편 건물지(불명건물지 I, 그림 4), 강당 서편에는 강당 서측기단과 1m 떨어진 곳에 서편 건물지(공방지 II, 그림 5)가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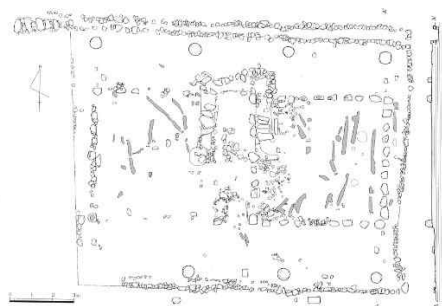
동편 건물지의 기단규모는 13.5×9.9m로 전면이 측면보다 긴 1:0.73의 비례를 나타낸다. 본 건물의 규모는 10.3×6.6m으로 한 변 0.4~0.5m의 초석을 사용하였다. 서벽의 초석배치 상태로 보아 줄기초 건물로 보고되었고, 건물의 기단 전면에는 디딤돌이 놓여 있다. 본 건물의 앞,뒤로 퇴칸초석이 배치되어 있다. 이 건물의 전면은 동회랑 복단과 연결된 장방형 건물지와 3.85m 떨어져 있어 공터를 사이에 두고 있다.

서편 건물지의 기단규모는 15.28×11.59m로 전면이 측면보다 긴 1:0.75의 비례를 나타낸다. 건물은 가운데 폭 1.2m의 통로를 사이에 두고

줄기초에 의해 2개의 방으로 나뉘어진다. 방의 규모는 5.8m이며 본 건물의 앞,뒤에는 전면 3칸(13.24m), 후면 3칸(10.68m)의 퇴칸을 두었다. 사용된 초석은 길이 0.3~0.6m, 너비 0.26~0.45m 이다. 동실(東室)의 서벽과 서실(西室)의 동벽에는 연도시설이 대청을 이루고 있고 중앙 복도의 북벽 뒤에 배연구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동실과 서실 전면에는 각각 디딤돌이 놓여 있다. 통로는 통행이 불가능하며, 등잔이 대량 발견되었다. 이 건물의 전면은 회랑 복단과 연결된 건물지와 공터를 사이에 두고 배치되어 있다.



<그림 4> 동편 건물지 실측도
(『陵寺』圖面/圖版, 2000, 8쪽 도면 27)



<그림 5> 서편 건물지 실측도(『陵寺』圖面/圖版, 2000, 36쪽 도면 25)

25) 1993년 동남리사지에 대한 재발굴조사가 실시되었지만 강당 좌우의 건물지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성경용, 『동남리사지의 성격(발굴조사자의 의견)』, 『부여 동남리사지 정비기본계획』, 부여군, 2007.

142 논문

(4) 왕흥사지

왕흥사지의 강당 좌우 건물지는 현재 서편에서만 조사되었다. 건물은 강당지 서측기단에서 약 0.8~1m정도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며 그 규모는 남북길이 13.3m, 동서너비 약 3m정도만 확인되었다. 건물 내부에는 0.3~0.5m의 초석 5매가 남북·동서 방향으로 시설되어 있다. 바닥에는 구들로 보이는 시설과 소토층이 확인되었다. 강당과 서편 건물지 사이의 공간은 배수로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되었다(그림 6).



<그림 6> 강당지(우)와 서편 건물지(좌)
(『백제문화를 찾아서 2009』, 2010, 35쪽, 사진 10)

2-2. 회랑 복단 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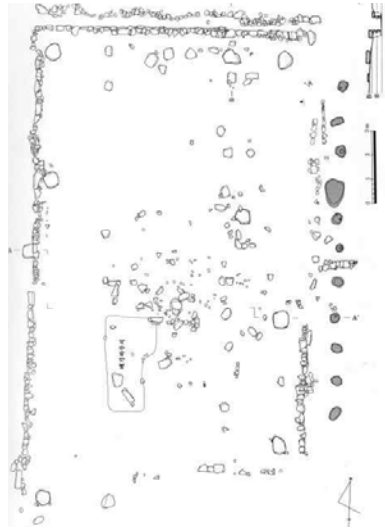
회랑 복단에 건물지가 연결된 유적으로는 능산리사지·왕흥사지·정립사지·제석사지·미륵사지가 있다.

(1) 능산리사지

능산리사지에는 회랑 복단과 연결되어 각각 1개의 건물지가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들 건물지는 강당 좌우의 건물지와 공터를 사이에 두고 직교하여 회랑과 연결된다. 건물의 남단은 금당 북측기단과 일직선상에 놓이며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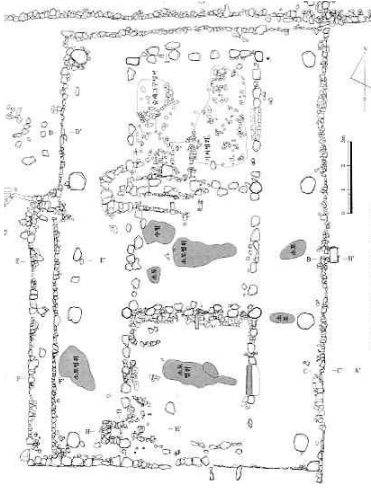
단은 강당 남측기단에 맞춰있다.

동건물지(불명건물지 II, 그림 7)의 기단규모는 12.26×18.43m이다. 건물의 전면 대 측면은 1:1.5의 비례를 나타낸다. 본 건물의 상면은 파괴가 심하지만 서건물지와 같이 줄기초에 의해 3개의 방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본 건물의 동측과 서측에는 전면 3칸(15.82m), 측면 3칸(10.8m)의 퇴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의 정면에는 디딤돌이 놓여 있다. 사용된 초석은 0.4~0.5m크기이다. 북쪽 부분에서는 타원형의 소토층이 확인되고 있다.



<그림 7> 동건물지 실측도
(『陵寺』圖面/圖版, 2000, 39쪽 도면 28)

서건물지(공방지 I, 그림 8)의 기단규모는 12.26×18.43m이며 1:1.5의 비례를 나타낸다. 본 건물은 5.16×15.72m의 규모이며 줄기초에 의해 3개의 방으로 나뉘어진다. 남실(남북 5.4m, 동서 5.2m)과 중앙실(남북 5.2m, 동서 5.2m)은 가운데 부분에 소토층이 형성되어 있고, 북실(남북 5.6m, 동서 5.2m) 내부는 전면적으로 검은 재가 깔려 있다. 각 방에는 연도가 마련되어 있다. 본 건물의 동쪽과 서쪽에는



<그림 8> 서건물지 실측도
(『陵寺』圖面/圖版, 2000, 20쪽, 도면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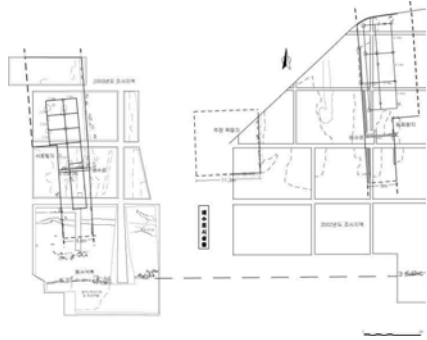
전면 3칸(15.88m), 측면 3칸(9.6m)의 퇴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의 동측기단 전면에는 디딤돌이 놓여 있다.

건물지 내·외부에서는 금동대향로가 출토되었고, 금속제품, 옥제품 등을 만드는 재료와 도구들이 발견되어 공방지로 명명되었다.

(2) 왕흥사지

왕흥사지에도 능산리사지와 같이 회랑 북단으로 세장방형 건물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각각 동·서 건물지로 명명되고 있다. 강당 좌우의 건물지와 공터를 사이에 두고 직교하며 회랑과 연결되어 있다. 건물의 남단은 목탑의 중심부분, 북단은 강당 남측기단과 일직선상에 위치한다(그림 9~10).

동건물지의 기단규모는 13.8×48m로 1:3.47의 비례를 나타내며, 서건물지의 기단규모는 12.7×48m로 1:3.77의 비례를 나타낸다. 건물의 내부에는 불규칙한 형태의 기둥자리가 배치되어 있다. 한편 동·서건물지 가장자리에서 6.5m 외곽으로 떨어진 지점에는 동서너비 11.4m 규모의 장방형 건물지가 금당지와 동일축선상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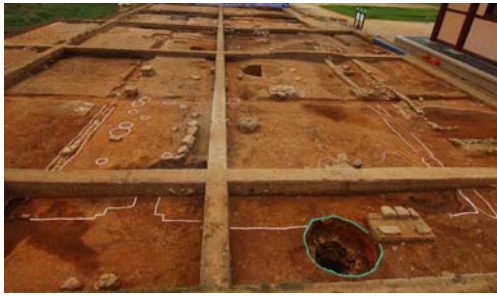
<그림 9> 회랑 북단 동·서 건물배치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연보2003』, 2004, 42쪽, 도면 2)



<그림 10> 왕흥사지 가람배치도
(『백제문화를 찾아서 2009』, 2010, 31쪽, 도면1)

(3) 정림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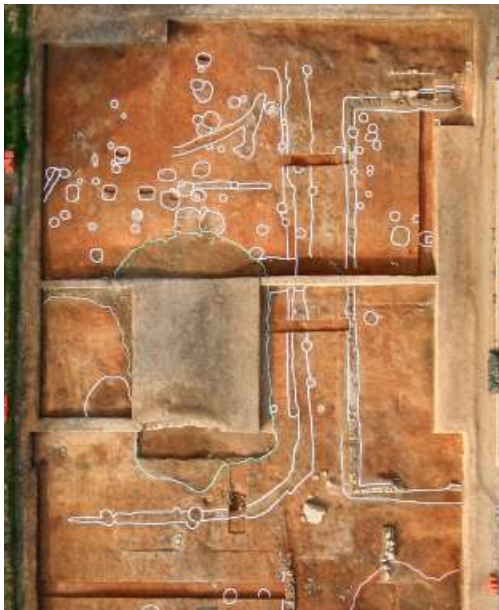
정림사지는 강당 좌우로 회랑 북단과 연결된 동·서 건물지가 강당 보다 3m 외곽으로 더 연장되도록 시설되어 있다. 건물의 남단은 금당 중심부와 일직선상에 배치된다. 강당과의 간격은 약 1m로 인접해 있다. 동·서건물지의 기단 규모는 12.1×39.3m로 1:3.24의 비례를 나타낸다. 동건물지는 동측기단부만 대부분 남아 있으며 서측과 북측은 기단의 흔적만 확인된다. 내부에는 소형 초석이 약 1.5m 이내의



<그림 11> 동건물지 및 내부 소형 초석배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제공)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그림 11).

서건물지는 기단부가 거의 유실된 채 그 기단의 흔적만 일부 확인이 가능하였다. 내부에는 방형의 적심토가 동서·남북방향으로 확인되었다(그림12).



<그림 12> 서건물지 전경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제공)

(4) 제석사지

제석사지는 정림사지와 같이 강당 좌우로 회랑 북단과 연결된 동·서 건물지가 이어지고 있다. 건물의 남단은 금당 북측기단과 일직선 건축역사연구 제19권 6호 통권73호 2010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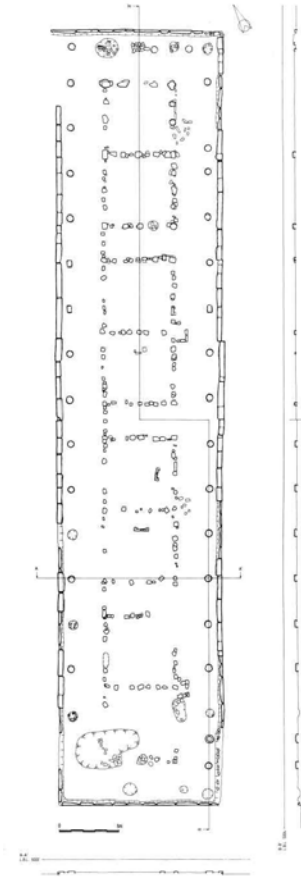
상에 놓이며 북단은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건물의 규모는 동서너비 13.2m이다. 기단 안쪽에는 초석으로 추정되는 방형 석재가 2매 놓여 있다(그림 13).



<그림 13> 동건물지 전경
(『백제문화를 찾아서 2009』, 2010, 58쪽, 사진 4)

(5) 미륵사지

미륵사지는 강당 좌우에는 회랑과 “『”형태로 꺾인 채 동·서건물지와 연결되어 있어 강당 북단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당 좌우 건물은 강당 뒤편 건물과 함께 승방지로 명명되고 있다. 내부는 줄기초에 의해 1실 4방의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동건물지의 규모는 65.5×14m로 1:4.67의 비례를 나타낸다(그림 14).



<그림 14> 동승방지 실측도
(『彌勒寺址遺蹟發掘調査報告書』, 圖版編)Ⅱ, 1996, 도면 32, 415쪽)

3. 개별 건물지의 용도와 기능 검토

3-1. 강당 좌우 건물지

지금부터 강당 좌우 건물지의 용도와 기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강당 좌우 건물지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찍이 군수리사지와 동남리사지는 경루지와 종루지로 명명되어 왔고, 능산리사지는 발굴된 사실을 토대로 서편 건물지는 공방지, 동편 건물지는 불명건물지 명명되었다. 왕흥사지는 현재 발굴조사 중에 있

어 성격이 규명되지 않아 부속건물지로 치칭하고 있다.

우선 경루(經樓)와 종루(鐘樓)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경루는 불경을 보관해 두는 누각이며, 종루는 누다락 위에 지은 종각(鐘閣)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²⁶⁾. 종루와 경루는 중국에서 수, 당대의 돈황석굴에서(수대 제423굴 굴정미륵경변적불사의 1전2루식 건물²⁷⁾) 확인되며, 초당 시기의 서명사 별원 강당 양쪽에서 건물이 발굴되었다.²⁸⁾

우리나라의 고대 사찰에서는 군수리사지·동남리사지·정릉사지·황룡사지 유적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수리사지와 동남리사지의 경우는 사역 북편 양 모퉁이에 전면보다 측면이 긴 장방형의 건물로서 배치되어 있는 반면, 정릉사지에서는 금당 좌우에 전면이 측면보다 긴 장방형 건물로 확인되고 있다²⁹⁾. 황룡사지에서는 3차 가람에 가서야 종루와 경루가 목탑 남쪽 좌우에 전면이 측면보다 긴 장방형으로 설치되어 있다³⁰⁾. 정릉사지와 황룡사지 유적과는 위치와 배치에서 다른 것을 알 수 있어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의 경우 군수리사지와 동남리사지에서는 별다른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26) 張起仁 著, 『韓國建築辭典』韓國建築大系 VI, 普成閣, 1998, 26쪽.

27) 김상태, 「新羅時代 伽藍의 構成原理와 密敎의 相關關係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建築學科 建築計劃專攻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4, 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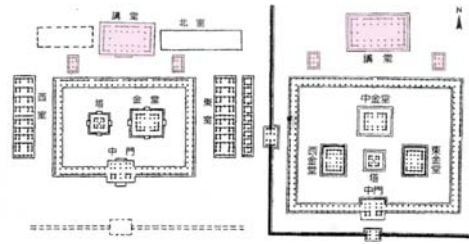
28) 李裕群, 「중국 가람배치의 변화 및 백제에 미친 영향」, 『동아시아의 불교문화와 백제』, 한일문화유산연구원 개원5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2009, 52쪽.

29) 한인호, 「정릉사건축의 평면구성에 대하여」, 『역사과학』, 제2호, 1981, 30~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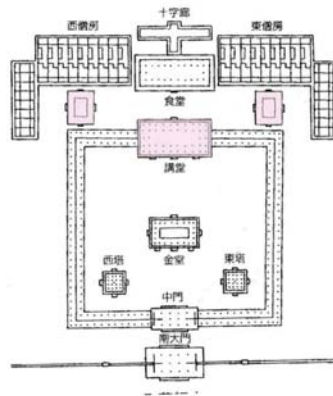
30)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黃龍寺發掘調査報告書 1』, 1984, 374~375쪽.

보고되었다. 경루와 중루가 사찰에서 귀중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곳인 만큼 생활용품과 장신구류의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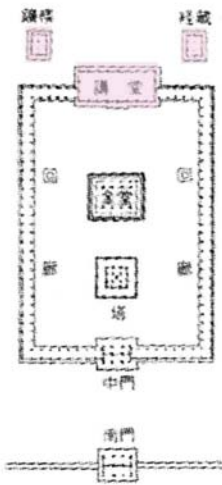
오히려 일본 고대 사찰에서 유사한 건물이 보이고 있다. 시텐노지(四川王寺)는 강당 뒤편 좌우에 대칭으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15). 아스카테라(飛鳥寺)는 강당 전면 좌우에 대칭으로 건물이 배치되는 있는데 전면 2칸, 측면 3칸으로 두 건물은 마주보고 있다(그림 16의 우). 호류지(法隆寺)도 아스카테라와 동일한 위치에 같은 평면배치를 보이고 있다(그림 16의 좌). 야쿠시지(藥師寺)는 시텐노지와 동일한 위치에 좌우 건물이 배치되고 있다(그림 17)³¹⁾.



<그림 16> 호류지(좌)와 아스카테라(우)
(森郁夫, 『日本古代寺院造營の諸問題』, 2005, 71쪽)



<그림 17> 야쿠시지
(森郁夫, 『日本古代寺院造營の諸問題』, 2005, 71쪽)



<그림 15> 시텐노지
(『정림사지권역 정비복원 고증 기본조사』①고증연구편』, 2009, 80쪽)

위에서 확인된 건물은 모두 전면보다 측면이 짧은 장방형이며, 서로 마주보고 있다. 건물은 호류지와 아스카테라에서는 회랑 바깥선 안쪽에 배치되고 시텐노지와 야쿠시지는 회랑 바깥선과 거의 일직선이 되도록 시설하였다.

일본의 고대 사찰유적과 군수리사지와 동남리사지에서 경루와 중루지는 강당을 중심으로 그 좌우, 강당 전면 또는 후면에 대칭으로 건물이 배치된다. 전면이 측면보다 짧은 점도 공통으로 확인된다. 이 건물들은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되며, 지금도 호류지의 강당 전면에 좌우 건물이 경루와 중루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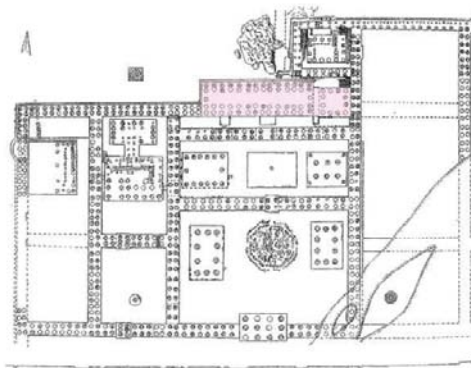
31) ①부여군·국립문화재연구소, 『고대 동아시아 불교사원의 전개와 부여 정림사지』, 『정림사지권역 정비복원 고증 기본조사①고증연구편』, 2009, 80쪽, 그림 3-36~38.

②森 郁夫, 『日本古代寺院造營の諸問題』, 雄山閣, 2009, 71쪽, 도25.

다음에는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와 같이 강당에 인접하여 건물이 배치된 경우를 살펴보고 하겠다. 왕흥사지는 아직 건물이 전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관계로 능산리사지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그림 21).

능산리사지의 강당 서편 건물지는 강당 기단과 매우 인접되어 있다. 건물은 전면이 길고 측면이 짧은 장방형을 하고 있다. 내부는 2개의 방으로 나뉘며 각 방의 전면에는 출입을 위한 디딤돌이 놓여있어 따로 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실에서는 동계우각형장식, 녹유병편, 첩화문자기편, 서실에서는 공방도구중 하나인 철제모루와 완, 등잔, 뚜껑 등 토기, 통로에서는 토기와 다수의 등잔이 출토되었다. 보고서에서 이 건물은 공방지(工房址)로 보고되었다³²⁾.

서편 건물지가 강당과 매우 인접해 있고, 서실에서는 생활용기인 각종 토기류와 등잔, 동실에서는 장식용기인 첩화문자기편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공방지 보다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휴게하는 공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18> 정릉사지 가람배치도
(『先史와 古代 23』, 2005, 28쪽, 도면 7)

이에 비해 강당 동편 건물지는 강당과 연결되어 있고 별다른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단지 불명건물지로만 보고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건물은 그야말로 강당에 붙어 있는 부속으로 딸린 건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건물은 고구려 정릉사지의 강당 동편 건물지에서 동일한 형태로 확인되고 있다³³⁾(그림 18).

3-2. 회랑 복단 건물지

지금부터 회랑 복단과 연결된 세장방형 건물지의 용도와 기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회랑 복단의 건물지는 능산리사지·왕흥사지에서는 강당 좌우 건물지 남쪽으로 배치되며, 정림사지·제석사지·미륵사지에서는 강당 복단까지 연장되어 강당과 직교되도록 배치되어 있다(그림 21).

능산리사지의 동건물지는 불명건물지 II, 서건물지는 공방지 I로 명명되었다. 동건물지가 물론 많이 삭평되어 건물의 기능과 용도는 알 수 없으나 잔존 상태로 보아 서건물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서건물지는 3개의 방으로 구분된다. 내부에서는 공방 관련 재료와 도구, 유물이 대거 출토하고 있고 바닥에는 붉게 탄 소토층이 깔려있어 공방이라고 불린 것으로 생각된다. 이 건물은 선방(禪房)³⁴⁾ 또는 승려의 생활공간이 아닌 집견과 의례를 준비하는 승방지로 보는 견해³⁵⁾가 제시되었다. 왕흥사지의 경우 미륵사지를 제외하고 가장 긴 세장방형 건물이 조성되어있지만 회랑 복단 동·서 건물의 전면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33) 이강근, 「高句麗 八角建物址에 대한 연구」, 『先史와 古代 23』, 韓國古代學會, 2005, 28쪽, 도면 7.

34) 李裕群, 주 28)의 앞의 책, 2009, 48쪽.

35) 부여군·국립문화재연구소, 주 31)의 앞의 책, 2009, 169쪽.

32) 國立扶餘博物館, 주 15)의 앞의 책, 2000, 48쪽.

얇아 건물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서는 타 유적과의 연구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정림사지의 경우 서건물지는 삭평이 심하고 내부의 적심토만 확인이 가능하며, 동건물지는 건물지의 규모와 내부에 소형 초석을 근접하게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은 천두식 구조로 지어진 승방지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그림 19)³⁶⁾. 제석사지는 회랑 북단으로 동·서 건물이 확인되나 현재 발굴조사 중이며 내부에서 초석 2개만 확인되었을 뿐이다. 강당 뒤편에는 승방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미륵사지는 회랑 북단 건물이 강당 뒤편에 위치한 북승방과 동일한 건물로 보아 동승방·서승방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 건물은 한 건물에 2개의 방이 한 쌍을 이뤄 4개가 남북으로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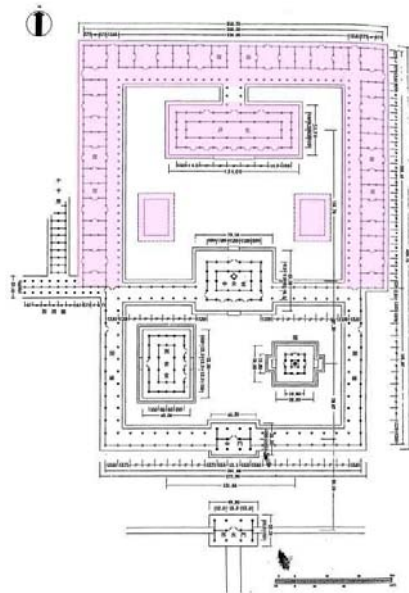
<그림 19> 정림사지 동건물지(승방지) 추정개념도(『정림사지권역 정비복원고증 기본조사①고증연구편』, 2009, 420쪽, 그림 6-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발굴조사가 완료된 능산리사지는 공방 또는 성격이 불분명한 불명건물지로 명명되고는 있지만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라 선방 또는 공적 업무가 이루어지는 승방지로 보고 있다. 정림사지도 승방지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미륵사지는 당초부터 건물지를 승방지로 보았다.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왕흥사지와 제석사지의 경우도 건물의 위치나 형태가 이들 건물과 유사하여 건물의 기능과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건물은 단순히 승려들의 생활공간이 아닌 수행과 의례를 위한 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능산리사지의 사역 북편에는 중심 사역과 분리되어 대단위 건물이 분포되어 있고, 미륵사지·금강사지에서는 강당 뒤편으로 승려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되었을 승방지들이 분포하고 있다.

일본의 고대 사찰 유적인 가와라테라(川原寺)에서도 회랑 북단과 연결된 승방지가 삼면에 배치되어 강당을 둘러싸고 있다(그림 20)³⁷⁾. 백제에서 보이는 회랑 북단 건물이 가와라테라의 가람배치에도 적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0> 가와라테라 실측도(『川原寺發掘調査報告』, 1960)

36) 부여군·국립문화재연구소, 주 31)의 앞의 책, 2009, 420쪽.

37) 奈良立文化財研究所, 『川原寺發掘調査報告』, 1960.

4. 유적의 편년과 개별 건물지의 변화과정 검토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백제 사찰 유적에서는 강당 좌우에 경루와 종루가 배치된 형태(군수리사지, 동남리사지), 강당 좌우에 소형 건물과 승방이 배치된 형태(능산리사지, 왕흥사지), 강당 좌우에 승방만 배치된 형태(정림사지, 제석사지, 미륵사지)의 3가지로 파악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들의 선후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적의 편년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건물의 변천과정에 따른 변동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건물의 기능과 용도의 변화과정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4-1. 편년적 검토

군수리사지와 동남리사지는 절대연대를 제시할 만한 문헌자료와 금석문자료 등이 출토되지 않았지만 가람배치와 출토된 연화문수막새에 의해 6세기 전~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³⁸⁾. 능산리사지는 목탑지 심초석 상면에서 확인된 석조사리감 명문기록에 의해 567년³⁹⁾이라는 절대연대를 가지고 있으며, 왕흥사지는 목탑지 심초석 내부에서 출토된 청동제사리함에 의해 577년⁴⁰⁾이라는 절대연대를 가지고 있다. 군수리사지와 동남리사지는 가람

배치로 볼 때 비교적 이른 단계로 보고 있어⁴¹⁾ 가람배치만으로 보면 후자가 앞선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군수리사지→동남리사지→능산리(567년)→왕흥사지(577년)의 순서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⁴²⁾.

회랑 복단에 건물이 배치된 제석사지는 「관세음응험기」에 639년 소설사실이 기록되어 있고⁴³⁾, 미륵사지는 서 석탑에서 출토된 금제사리기의 명문을 통해 639년⁴⁴⁾이라는 절대연대를 가지고 있다. 제석사지와 미륵사지는 절대연대 보다 조영착수가 먼저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7세기 전반대에 이미 사찰이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림사지는 천도 직후 사비도성 내부에 세워진 절터로 보고 있지만⁴⁵⁾ 발굴조사에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가람배치가 천도 직후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하기 어려

41) ① 金星雨, 주 24)의 앞의 논문, 1989,

42) 수막새에 따른 건물지의 조성과 존속시기에서도 위의 유적 순으로 확인되고 있다.(소재윤, 주 38)의 앞의 논문, 2004, 66쪽.

43) 「觀世音應驗記」百濟武廣王遷度積慕密地新營精舍以貞觀十三年歲次己亥冬十一月天大雷雨遂災帝釋精舍佛堂七級浮圖乃至廊房一階燒盡塔下礎石中有種種七寶亦有佛舍利屎水精瓶又以銅作紙寫金剛波若經貯以木漆函發礎石開視悉階燒盡唯佛舍利瓶與波若經漆函如故水精瓶內外微見蓋亦不動而舍利悉無不知所出六箇悉見於是大王及諸宮人倍加敬信發即供養更造寺諸焉.

44) 금제사리기 외면에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 좌평(佐平) 사택적덕(沙F積德)의 따님으로 지극히 오랜 세월(광겁·曠劫) 선인(善因)을 심어 금생에 뛰어난 과보(승보·勝報)를 받아 삼라만상을 어루만져 기르시고 불교(삼보·三寶)의 동량(棟梁)이 되셨기에 능히 정재(淨財)를 회사하여 가람(伽藍)을 세우시고, 기해년(己亥年)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했다.(竊以法王出世隨機赴感應物現身如水中月是以託生王宮示滅雙樹遺形八斛利益三千遂使光曜五色行요七遍神通變化不可思議我百濟王后佐平沙積德女種善因於曠劫受勝報於今生撫育萬民棟梁三寶故能謹捨淨財造立伽藍以己亥年正月廿九日奉迎舍利)고 기록되어 있다.

45) 박순발, 「泗泚都城 研究現況과 課題」, 『百濟 泗泚 時期 文化의 再照明』 第14回 文化財研究國際學術大會,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5, 112~1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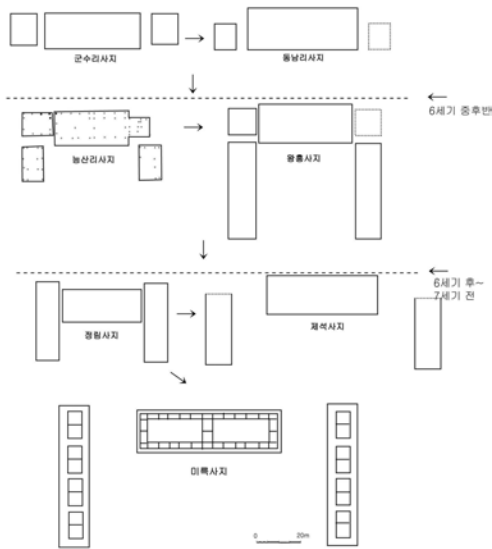
38) 소재윤, 「百濟 瓦建物址의 築造技法과 變遷過程에 대한 研究-웅진·사비기의 금강유역을 中心으로」, 全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2004, 66쪽.

39) 석조사리감 외면에 “백제 창왕 13년(567년) 공주가 사리를 공양하였다.”(百濟昌王十三年太歲在丁亥妹兄公主供養舍利)고 기록되어 있음.

40) 청동제사리함 외면에 “정유년(577년) 2월15일 백제 창왕이 죽은 아들을 위해 절을 세우고 본래 사리2매를 묻었을 때 신의 조화로 3매가 되었다.”(丁酉年二月十五日百濟昌王爲三王子利本舍利二枚葬時神化爲三)고 기록되어 있음.

위⁴⁶⁾ 정립사지→미륵사지→제석사지 순으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강당 좌우 건물이 배치된 경우는 6세기 전후반~6세기 중후반에 해당하고, 강당 좌우에 회랑 복단 건물이 배치된 경우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5~7세기 가람배치의 변천은 군수리사지→동남리사지→능산리사지→왕흥사지→정립사지→미륵사지→제석사지로 볼 수 있겠다⁴⁷⁾(그림 21).



<그림 21> 가람배치 추정 변천모식도
(필자 작성)

4-2. 건물의 기능과 용도의 변화요인 검토

유적의 편년적 검토를 통해 강당 좌우의 건물지가 배치된 사찰이 그렇지 않은 사찰에 비해 앞서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건물의 변천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건물의 기능과 용도는 어떻게 변천되며, 그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군수리사지와 동남리사지의 좌우 건물과 능산리사지의 좌우 건물은 위치, 규모와 구조, 기능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건물의 기능과 성격에 차이는 있어도 강당 좌우에 건물이 배치되고, 회랑 복단으로 건물이 위치하여 기본 골격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군수리사지의 경우 동회랑지 일부에 방으로 구획된 부분이 확인되고 있어(그림 2) 회랑 복단의 건물지가 배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볼 때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정립사지·제석사지·미륵사지의 회랑 복단 건물은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하기 위해 배치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에는 강당 좌우에 배치된 소형 건물지 대신에 회랑 복단의 건물지로 대체된다. 그렇다면 강당 좌우의 소형 건물들은 어디로 이동되었을까?

군수리사지와 동남리사지에서 보이는 좌우 건물지는 사찰의 중요한 귀중품이 모셔지는 공간이다. 이 건물지들은 백제시대 군수리사지와 동남리사지를 제외한 유적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수리사지와 동남리사지의 경루와 종루가 능산리사지의 강당 좌우 건물이 들어서면서 원위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아니면 회랑 복단 건물이 강당 복단까지 이어지면서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배치된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능산리사지의 경우는 일

4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주 1), 앞의 책, 2009~2010.

47) 이는 목탑의 지하식 심초가 지상화 되는 과정(군수리사지, 능산리사지 지하식심초→왕흥사지 반지하식 심초→미륵사지, 제석사지 지상식심초)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정자영, 「백제의 심초 및 사리불안」, 『文化財』 제41권 1호, 2008, 124쪽.)

상생활은 아니지만 절에서 사람이 머물고 활동하였던 공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회랑 복단 건물지는 선방 또는 승려들이 의례 또는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였던 공간인 것도 알 수 있다. 6세기 후반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강당 좌우의 건물들이 회랑 복단 건물에 기능이 통합되어 흡수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렇듯 강당 좌우의 건물은 사찰에서 요구되는 건물의 역할에 따라 차례대로 변천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사찰에서는 왜 건물의 역할이 달라지게 되었을까? 물론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 변화가 되었을 수 있지만 외부환경에 의한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백제는 384년 동진의 호승 마라난타에 의해 불교가 전래되었다. 527년에는 중국의 양나라와 교류하면서 양나라 연호를 딴 대통사를 건립하였다. 541년에는 양나라로부터 사찰 건립에 필요한 工匠, 畫師의 전문 공인이 파견되었다. 또한 백제는 남조와 교류하면서 북조의 북제(北齊)와 567년, 북주(北周)와 577년 교류를 시작하였다⁴⁸⁾. 나아가 수(隋)나라가 581년 남조와 북조를 통일하고, 통일왕국은 618년 당나라로 교체되면서 백제는 중국의 통일왕조와 교류하게 된다. 이처럼 백제는 크게 6세기 전중반, 중후반, 7세기 전반을 걸치면서 중국대륙과의 교류를 통해 남조의 문화, 북조의 문화, 남북조의 통일된 문화를 접하게 된다. 이에 백제는 중국에서 사찰 건립의 변천과정 속에서 사찰건축 기술과 변화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8) 鄭載潤, 「5~6세기 백제의 남조 중심 외교정책과 그 의미」, 『百濟文化』 第四十一輯, 公州大學校百濟文化研究所, 2009.

5. 결론

정립사지 발굴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회랑 복단의 건물지가 기존에 제시된 가람배치와 차이나는 것에 주목하여 6~7세기 백제 사찰 유적의 강당 좌우 건물지, 회랑 복단 건물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강당 좌우 건물지와 회랑 복단 건물지가 포함된 가람배치는 6세기대 사찰 유적에서 확인되었고, 강당과 회랑 복단 건물지가 직교하는 가람배치는 이보다 늦은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사찰 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강당 좌우 건물은 사라지고 회랑 복단의 건물이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점은 정립사지의 가람배치 1안이 가람배치 3안에 앞선 단계에 존재하였던 건물로서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지만, 현재로서는 1안의 존재 여부를 좀 더 두고 봐야 하겠다. 나아가 강당 좌우의 건물은 회랑 복단의 건물로 대체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石田茂作, 「扶餘軍守里廢寺址發掘調査(概要)」, 『昭和11年度 古蹟調査報告』, 朝鮮古跡研究會, 1937
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扶餘軍守里寺址 I -木塔址·金堂址·東便一帶 發掘調査報告-』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學術研究叢書 第53輯, 2010
3. 朝鮮古跡研究會, 「扶餘東南里廢寺址發掘調査」, 『昭和13年度 古蹟調査報告』, 1940
4. 國立扶餘博物館, 『陵寺』, 國立扶餘博物館遺蹟調査報告書 第8冊, 2000
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왕흥사지 제5차 발굴조사」, 『연보 2003』, 2003

152 논문

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王興寺址 III-木塔址 金堂址 發掘調査報告書』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學術研究叢書 第52輯, 2009
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왕흥사지 제 10차 발굴조사」, 『2009 백제문화를 찾아서』, 2010
8.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정림사지 제 8차 발굴조사」, 『2008 백제문화를 찾아서』, 2009
9.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정림사지 제 9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2009.
1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정림사지 제9차 발굴조사」, 『2009 백제문화를 찾아서』, 2010
1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익산 제석사지 제1차 발굴조사」, 『2008 백제문화를 찾아서』, 2009
1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익산 제석사지 제2차 발굴조사」, 『2009 백제문화를 찾아서』, 2010
13.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彌勒寺址遺蹟發掘調査報告書』II,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學術研究叢書 第13輯, 1996
14. 李裕群, 「중국 가람배치의 변화 및 백제에 미친 영향」, 『동아시아의 불교문화와 백제』, 한얼문화유산연구원 개원5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2009.

접수(2010. 10. 15)

게재확정(2010. 11. 26)

Survey on Transition Process of Construction Sites in Left and Right of Lecture Hall in the Temple of Baekje During the 6~7th Century

Jung, Ja-Young

(The Buye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rual Heritage)

Abstract

Jeongrimsaji as temple remains of Baekje Sabi period, its re-excavation has been carried three times in full scale. As a result, the buildings in left and right of lecture hall was largely identified in 3 forms.

First, layout of small buildings in left and right of lecture hall. Second, layout of corridor in left and right of lecture hall. Third, layout of construction site in the north of corridor in left and right of lecture hall. Above second is included into remains of Gorye, the third is included into remains of Baekje - the remains were almost ruined then. The first form and third form in above is different each other in size of buildings, form of layout, and location.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these points: the time of constructing the buildings; what position have the use and function of the buildings in the temple? ; transition process of layout of the Buddhist temple.

In this context, of temple remains in Baekje during the 5~7th century, the cases where construction sites in left and right of lecture hall and construction site in the north of corridor are identified, have been reviewed. Based on this review, the use and function of buildings, their transition process were investigated.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small buildings in left and right of lecture hall existed in the middle and later period of the 6th century. During the later 6th century ~ the 7th century, construction site in narrow and long square shape was located in left and right of lecture hall instead of small buildings in the north of corridor. Therefore, it is identified that the aforementioned thing is earlier stage and the latter thing is later stage.

Keyword : Temple in Baekje During the 6~7th Century, Construction Site in Left and Right of Lecture Hall, Construction Site in Narrow and Long Square Shape in the North of Corridor
